

달아나더라 닦고 싶어라

이 경 민

한 조각만 잡으려, 잡으려 해도
움직임직 거리며 스리슬쩍
제 손만 빼고 달아나더라.

조금만 들여다 볼랍시고
가까이 다가가면 어느 새
잔상만 남기고
제 모습은 달아나더라.

어찌 그리누, 어찌 그리누.
쥐장난을 부리누.
그 원망도 잠시.

돋을별이 떠오를 때도,
땅거미가 내려올 때도,
설렁설렁 제 갈길 그리며 가는
강물 한 자락을 닦고 싶어라

갑작바람 불어올 적에도,
고추바람 불어갈 적에도,
울렁울렁 쉬이 흘러만 가는
강물 한 줄기를 닦고 싶어라

설피지도 않고,
강짜를 부리지도 아니하는,
곰살긋은 심보의
바로 그 물꼬리를 닦아 가고 싶어라